일 주 문



호흡명상 집중수련회

인경 서울 목우선원 선원장 스님은 9월 1일까지 목우선원에서 제1차 호흡명상 집중수련회를 개최한다.



마음챙김 명상 강의

마가 자비명상 대표 스님은 8월 24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주제로 강의 및 명상 실참을 지도했다.

변재덕 동국대 홍보실장 서울지역대학홍보협의회장 선임



변재덕 동국대 홍보실장〈사진〉은 8월 22일 열린 서울지역대학홍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1년간이다. 2016년부터 동국대 홍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변 실장은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총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대학홍보협의회는 대학 홍보업무 연구개발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서울지역 30여 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가입돼 있다. **신성민 기자**

"한반도 평화 정착, 불교인 책임"

국제불교聯, 광복 72주년 평화포럼 개최



광복 72주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제불교연합이 국운융창기원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서는 스님들과 정치, 언론인들이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국제불교연합 회장 천강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범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광복 7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국운융창을 기원한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국제불교연합 제주지회장 영수 스님의 호국기원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대회사로 "기득권층과 약자, 소외계층이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사회 각 부문의 개혁, 사회적 양극화 등 불평등 해소, 경제활성화, 보편적 복지확대, 취업확대 등 국민적 요구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직후 백용화 용화불교 이사장이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종광 스님이 국제불교연합 운영위원장, 법광 스님이 문화위원장, 도각 스님이 경상북도지회장, 자문 스님이 비구니회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국민 가치 공유 차원 미남불, 경주 반환해야

Interview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8월 7일 정부 및 국회 청원 보내

"불법 반출된 미남불, 돌려보내라"

靑 "바람직한 방향 찾을 것" 답변

경주시 지자체도 나서… '낙관적'

'청와대 미남불'은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바람대로 고향인 경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8월 24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앞서 지난 8월 7일 청와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을 원래 소장처인 경북 경주로 옮겨야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부당하게 조선총독부로 불법 반출된 통일신라 불상이 지금도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혜문 대표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 청와대에서 '종교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답변이 왔다"면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청와대 비서실 측에서 직접 답변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혜문 대표는 "청와대가 미남불 반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좋은 신호"라면서 "문화재 반환이 하루아침에 이룰 일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혜문 대표는 경주시가 미남불 반환에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주문화원 · 경북정책연구원 등 경주시 범시민사회단체는 8월 23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석불좌상 경주 모시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 반출된 경주 문화재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혜문 대표는 "경주 지역에서 청와대 미남불 등 본래 경주 소장 문화재를 자신의 지자체로 되찾아 오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나선 것은 여론을 더욱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앞으로 경주시측과 협력해 미남불을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다. 지금처럼 청와대에 안치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 이에 대해 혜문 대표는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문화재를 청와대로 들여보낼 것이냐"고 반문하며 "문화재는 박물관에 있는 것이 보존과 관리에 가장 적합하다.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모든 국민들과 미남불의 가치를 공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남불'이라고도 불리는 이 석불좌상은 8~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청와대 대통령 관저 뒤쪽 보호각 안에 안치돼 있다.

본래 경주에 있던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小平)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1927년 경복궁에 새 총독관저(현 청와대)가 건립되며 현재 위치로 옮겨졌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 보호각이 만들어졌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어르신 복지, 지역복지로 확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25일 증축개관식 개최

목욕탕 · 황토방 갖춰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대학가의 젊은이들이 연극을 펼칠 수 있는 공연장을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종로구 복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 복지를 넘어 종합복지로의 영역 확대에 나섰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25일 증축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관장 정관 스님〈사진〉은 "어르신 복지를 지역사회 복지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설 증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 문을 연 이후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증축을 결정하게 됐다.

2013년 1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약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복지관 옆공간에 수평 증축이 진행됐다. 5개 층이 증가해 복지관 전체 연면적도 4,795㎡(약 1,453평)으로 늘었다.

1층에는 경로식당과 플러스카페 3호점, 2층에는 목욕탕과 황토방, 3층에 건강상담실과 기능회복실, 4층에 공연장 종로마루홀, 5층에 장(醬)체험관 및 장 카페가 새롭게 마련됐다.

60세 이상의 종로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 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목욕탕의 경우 회원은 이용요금 3000원, 차상위계층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어르신의 경우 월 2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테라피시설 등 그 외 시설은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정관 스님은 "대학로 인근에 위치한 만큼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 복지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종로노인복지관의 자랑인 장나눔 봉사를 보다 활성화해 장카페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24일 가을 학위수여식

석 · 박사 1666명 학위 수여



동국대(총장 보광)는 8월 24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7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22명, 석사 561명, 박사 83명 등 총 1666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이날 늦은 나이에 고졸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 학사를 졸업하고 불교학문을 연구한 김복필 할머니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신성민 기자**

청련사, 어르신들에 생계비 지원



양주 청련사(주지 해경)는 8월 22일 청련사가 소재한 양주시 장흥면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60대도 기증했다.

청련사는 지난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7 나눔캠페인' 동참과 함께 저소득층의 안과질환 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양주시어르신무료급식소 지원 및 저소득층 나눔의 쌀 지원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상담개발원, 선사이코 드라마 회향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8월 18일 개발원 교육실에서 '선禪 사이코 드라마(Zen Psycho Drama)'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서울불교대학원대 초빙교수 효록 스님 진행으로 총15명이 참가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역할극 시연을 주로 하는 집단상담으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아픔을 보듬고 풀어내는 감동적인 시간들로 채워졌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